보 도 자 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배포 일자	2026.11.5.(목) / **총 3매** (본문 2, 붙임 1)	
자료 제공	• 글로벌전략연구본부 해양안보전략연구실 - 임병호 실장(051-797-4554)/채수란 전문연구원(051-797-4790)	
배포 부서	• 성과홍보실(강자운 행정원 051-797-4396, 이선우 실장 051-797-4381)	
보도 일시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www.kmi.re.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제안보 시대 국가 해양력 강화방안 모색

- 5개 해양안보 전문기관,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북극항로 대응 전략 논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조정희)은 11월 3일(화)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해군대학,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제주평화연구원, 해양경찰교육원과 공동으로 「2026 해양안보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신해양시대, 경제안보와 국가 해양력의 재조명'을 대주제로, 최근 중동 정세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 주요 해상교통로의 전략적 중요성 증대, 북극항로 개방 등 변화하는 해양안보 환경을 진단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강명길 합참 군수부장과 원태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이 환영사를 전했다. 진성준·조승환 국회의원과 이은주 서울사이버대학교 총장이 축사를 했으며, 정호섭 전 해군참모총장이 기조강연을 맡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협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해상교통로 보호 전략, 북극항로 개방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대응과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60일간 봉쇄될 경우 우리 경제의 후생손실이 453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원유·나프타 비축 확대, 연안국별 맞춤형 외교협력 방안 등이 제시됐다.

첫 번째 세션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협과 해상교통로 보호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박현도 서강대학교 교수는 최근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위기를 분석했으며, 임병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안보전략연구실장은 해상교통로의 중요성과 봉쇄에 따른 파급효과를 발표했다. 이어 박민정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리나라 초크포인트 해양안보를 위한 외교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은 '북극항로 개방에 대비한 국가 융합 전략'을 주제로 해양수산·해군·해양경찰의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김엄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극지전략연구실장은 북극항로 개발에 대비한 한국의 추진전략을 발표했으며, 정재호 해군 대령과 배지영 해양경찰교육원 경감은 각각 북극항로 개방에 대비한 해군전략과 추진과제, 해경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은 "최근 해상교통로의 불안정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북극항로의 부상 등 해양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국가 경제안보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안보와 해운·물류 분야의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해양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번 공동 학술세미나를 계기로 해군, 해양경찰 및 국내 해양안보 전문기관과의 연구협력과 전문가 교류를 지속하고, 경제안보와 국가 해양력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상기 보도자료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 및 취재지원 필요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양안보전략연구실 임병호실장(051-797-4554), 채수란 전문연구원(051-797-479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현장 사진**


'26년
해양안보
공동학술
세미나
2026 해양안보 공동학술세미나
개 회 사
新 해양시대
경제안보와
국가해양력의
재조명


'26년
해양안보
공동학술
세미나
2026 해양안보 공동학술세미나
新 해양시대
新 해양시대
경제안보와
국가해양력의
재조명